

제1712호(18-11) 2018년 3월 26일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시각: 전략적 합의와 대응 방안

설인효 || 한국국방연구원 정책개발실

한반도는 현재 평화적 비핵화와 군사적 갈등 사이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향후 정세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사고와 접근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고는 미국 내 주요 매체 및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검토하여 현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접근전략을 분석하였다. 미국 내 매체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정상회담 수락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미·북 양 지도자의 불가예측성과 과감성 덕분에 중간과정을 생략한 획기적 전환의 기회가 마련되었으나 그만큼 실패 시의 위험부담도 크다.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지나치게 높은 기대는 회담의 성사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회담결과에 대한 회의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미·북 양자가 이번 기회에 한반도의 전략상황을 평화의 방향으로 확실히 전환시킬 수 있도록 중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드러낼 만큼 충분히 까다로우면서도 미·북 양자가 단기간에 합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양자가 여기에 합의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긴장완화가 추진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한반도는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들을 목도하고 있다. 특히 우리 특사단이 백악관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를 전격 수락함에 따라 2018년 5월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북한의 잇단 도발과 함께 ‘전쟁 위기설’마저 수차례 거론되었던 한반도는 평화적 비핵화와 군사적 갈등 사이에서 다시 한 번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지 모를 향후 정세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사고와 접근법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미국 내 주요 언론 매체 및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 상황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접근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 제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미 주류 언론 및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견해와 상당한 괴리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분석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객관적 조언이 된다는 점과, 향후 회담 결과에 대한 미국 내 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의 견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¹⁾

특히 본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수락 과정 평가와 회담 의제 전망뿐 아니라 회담의 성공 가능성 및 실패 요인, 회담 결과 예측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우리가 미국의 인식과 접근전략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향후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그 결과 한반도 평화 모멘텀 지속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이와 같은 역할 수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한·미 공조 및 주변국 외교 강화의 관점에서 제시할 것이다.

회담 성사과정에 대한 평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수락에 대한 미국 내의 일반적 반응은 ‘충격적’이라는 것이며,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²⁾ 정상회담 성공 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큰 외교적 성과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여러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미국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³⁾ 무엇보다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의도가 구체적 수준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회담 수락 전 고도로 훈련된 관료집단의 엄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했으며, 동맹인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관계 국가와도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 많다.⁴⁾ 회담 수락 전 이 회담을 통해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스(Ryan Hass)는 미국 외교의 대가라 할 키신저(Henry Kissinger)의 진두지휘하에 3년에 걸친 사전 협의 후 시행되었던 결과였던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사례로 제시하며 이번 회담 수락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⁵⁾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수락 배경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 해석이 지배적이다.⁶⁾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성격과 독단성, 모험주의적 성향을 지적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

를 앞두고 국내정치적 국면 전환 및 외교적 성과 창출이 필요했다는 점을 이유로 지적하는 경우도 많다. 마지막으로 노벨평화상 수상과 같은 개인적 성취 욕구가 극적인 정상회담 수락의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회담 의제 및 예상 합의 사항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할 경우 회담이 결렬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동결과 관련 시설 사찰·검증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ICBM 기술 동결은 기존 핵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맹과 미 주둔기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북한이 비물리적 방식으로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본다.⁷⁾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초 ‘이란핵합의’를 파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란핵합의보다 못한 결과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⁸⁾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관철되어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및 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단의 사찰 수용 등이 이루어지고 반대급부로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종전협정, 평화선언, 미·북 관계 정상화 등이 교환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된다.⁹⁾ 그러나 정상회담의 성과를 낙관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

안이라는 점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너무 큰 조건을 양해해 줄지 모른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ICBM 기술 동결을 확실히 하는 대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조건을 북한에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라이트(Thomas Wrigh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미 본토의 안전을 최우선시할 뿐 아니라 ‘동맹’을 미국의 이익을 잠식하는 ‘실패한 거래’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환이 가능할지 모른다고 주장한다.¹⁰⁾ 로이(Denny Roy)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미국의 대전략과 중국에 대한 군사력 균형에 사활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자들은 대통령이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¹⁾

성공 가능성 및 조건

회담이 일단 성사된다 해도 성공적인 결과를 산출할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너무나 성급하게 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결과를 산출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고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 가야할 한반도 외교라인이 거의 공식인 점은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의 의도와 회담 조건은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정상회담의 조건으로서 거부

했던 수준에 불과하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¹²⁾ 북한은 항상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원해왔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회담 성과가 보장되어야 한다. 클린턴(Bill Clinton)을 비롯한 과거 미국의 정상들은 현재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조건에 기초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

모든 전문가가 성공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회담이라는 점에서 의외의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양자는 모두 예측이 어렵고 충동적 성향이 있으며 모험주의적이다. 양자 모두 자신이 유일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양자의 회담은 그 이하 어떤 레벨의 회담도 달성할 수 없는 획기적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¹³⁾

하스(Ryan Hass)는 북한 당국자들이 항상 최고 지도자 간 만남만 성사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해 왔음을 지적한다.¹⁴⁾ 따라서 실무자 간 협상을 통해서도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어려운 비핵화의 쟁점들이 오히려 정상급 회담을 통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두 인물 모두 스스로 이런 업적을 중시하는 만큼 획기적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

크로닌(Patrick Cronin)은 올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변화가 일반적 평가와 같이 국제적 연대를 와해시키거나 단순한 시간벌기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그는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인식한 결과에서 비롯된 보다 근본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⁵⁾ 첫째, 미국이

주도하는 최대의 압박은 북한이 명확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한·미 동맹은 절대로 분리·이완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중국도 유엔 제재에서 이탈해 북한을 두둔하고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상기한 변화를 바탕으로 크로닌은, 4월에 시작될 연합연습이 축소된 규모로 진행되어 북한이 이에 반발하지 않고,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보다 명확히 표출된다면 미국의 특사가 북한에 들어가 말을 행동으로 옮길 ‘검증 과정’에 합의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른다고 전망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반복되던 군사적 긴장고조를 상기할 때 미·북 정상회담은 ‘걸어볼 만한 도박’이 되는 것이다.¹⁶⁾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¹⁷⁾ 첫째, 많은 전문가들이 동맹 및 관련 국가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은 무엇보다 회담 성사의 전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한 소통 및 공조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기본적 목적의 하나는 한국과 미국을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⁸⁾ 동맹국 일본과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 이해와 지지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미국은 동맹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이들 국가에도 특사를 파견해 협상의 조건과 단계적 이행 방안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중 누구도 협력을 철회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국에게 지나친 무역 압박을 가해 협력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 비핵화로 나가는 전 과정에서 지속

적으로 작용해야 할 강제조치들은 그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다.¹⁹⁾

둘째로 강조되는 것은 **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²⁰⁾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는 본질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매우 길고 지난한 협상과 이행의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번의 회담을 통해 이를 모두 성취하려 할 경우 실망감과 상실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나친 기대의 위험성 역시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높은 기대로 인해 정상회담이 결렬되거나 또는 도출된 성과가 실패로 인식될 경우 결국 외교의 실패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져온 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²¹⁾

셋째,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적 관점을 가진 인사들은 북한이 회담을 체제 선전에 활용할 것이라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북한 내에서의 ‘작은 승리’일 뿐이며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전 세계를 위한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²²⁾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좋은 협상 전략이 아니다. 북한에게 인권문제는 미국에게 핵확산이 위협적인 만큼 정권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모든 목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으며 장기적 목표는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당면한 목표마저 망쳐서는 안 된다.²³⁾

회담 후 상황 전망

회담이 일단 성사되고 정상회담에 걸맞은 일정한 성과를 산출한 후의 상황 전개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가 많다. 이는 주로 북한이 과거 회담 및 협상에서 보여 온 태도와 행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결과이다. 미·북 회담의 역사는 ‘검증 약속 파기’의 연속이었다는 것이 미국의 전반적 인식이다.²⁴⁾

상기한 부정적 견해에 따르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라는 대원칙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검증 방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북한이 극도로 폐쇄된 사회이고 정보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증은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된다.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을 신고했는지, 신고한 핵·미사일이 제대로 폐기되었는지를 검증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IAEA의 사찰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검증단의 접근권 문제를 놓고 다시 세부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검증 방식을 놓고 회담이 공전되거나 결국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²⁵⁾ 이와 별도로 북한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내세워 한·미 동맹에 직결된 사항을 비핵화 이행의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한·미 간 또는 양국의 국내사회 내에서 상당한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담 후의 상황에 대한 또 다른 미국 내 시각은, **회담이 성사되었으나 어떠한 종류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종결될 경우 큰 위험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²⁶⁾ 정상회담의 실패는 ‘외교의 최종적 실패’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더 이상 시도해 볼 수단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강경파가 득세하고 해상 차단과 같은 극도의 제재나 군사옵션 시행 등을 통해 외교가 성취하지 못한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이 미국 내에서 고조될 것

이다. 백악관 역시 북핵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물리적 방식에 의한 해결 외에는 남지 않았다고 확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담 성공을 위한 다각적 준비와 함께 실패할 경우의 대책도 미리 수립해 둘 필요가 있다.²⁷⁾ 협상 실패 시 더욱 강력한 억제와 함께 외교, 경제적 압박 수단을 마련해 두어 회담의 실패가 외교의 종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담이 실패한다 해도 외교적 해결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며, 외교적 해결이 다시 도출될 수 있도록 비군사적 방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전략적 합의 및 대응방향

미·북 정치지도자의 불가예측성과 독단적 의사결정 스타일은 역설적으로 중간과정을 생략한 과감한 진전을 가능케 했다. 미 정보부가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ICBM 기술을 완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극적 반전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획기적 결과가 기대되는 동시에 극도로 위험한 상황도 초래될 수 있는 것이 흡사 도박과도 같은 지금의 현실이다. **이토록 ‘위험천만한 도박’을 ‘걸어 볼만한 도박’으로, 나아가 ‘안전한 투자’로 전환하는 일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내 주요 매체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회담 결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론의 압박은 회담의 결과를 충실히 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회의론이 팽배할 경우 회담의 불발이나 미·북 간 갈등의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회담이 결렬되거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이전보다 더 큰 군사적 위기가 도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취 가능한 합리적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다.** 그래야 회담 결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차단하면서 동시에 일정한 성과 획득을 바탕으로 평화의 모멘텀을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크로닌은 ‘제한적이지만 획기적인 돌파구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는 조치에 합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²⁸⁾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비핵화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단순히 양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조치에 만족할 수는 없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성취해야 할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드러낼 만큼 충분히 까다로우면서도 미·북 양자 간에 단기간에 합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치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와 다른 실질적 비핵화조치가 가시적으로 취해져 한반도의 상황을 평화의 방향으로 확실히 반전시키는 것이다.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상호 대적점에 있는 미국과 북한이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조치에 합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 한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확신을 가지고 미국이 제안하는 조치에 합의할 수

있도록 비핵화 진행 시 주어질 경제적 보상과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합의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남북 양자의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의사와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설명하여²⁹⁾ 협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세계 평화의 길이 열렸음을 지속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핵화 과정이 지난한 만큼 ‘대전환을 확인하는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미국이 지나치게 무리한 목표를 추구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또한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주변국과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고 평화적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협상이 구체적 수준에서 진행될 경우 관련국들 사이에는 국익을 둘러싼 신경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회담 실패 시의 상황을 상기시키고 평화적 비핵화의 공동 이익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국가도 비핵화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1) 미국 내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만큼 이들의 견해가 북한 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미 행정부의 정책결정과 미국 내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2) Blader, J. (2018, March 12). 9 things Trump should do before he meets with Kim Jong-un. *Brookings Institution*.
- 3) Hass, R. (2018, March 9). Three things to watch ahead of the summit between Trump and Kim Jong-un. *Brookings Institution*.
- 4) Bruce Klingner (2018, March 13). Pitfalls in US Rush to North Korea Summit. *Heritage Foundation*.
- 5) Hass, R. (2018, March 9). Three things to watch ahead of the summit between Trump and Kim Jong-un. *Brookings Institution*.
- 6) North Korea talks: Trump praises own role but Washington frets over details. (2018, March 10). *The Guardian*.
- 7) Revere, E. (2018, March 9). A US-North Korea summit: what could possibly go wrong? *Brookings Institution*.
- 8) Baker, P. (2018, March 8). Trump's meeting with Kim Jong-un Is another pledge to do what nobody else can. *New York Times*.
- 9) 맥메스터(H. R. McMaster) 안보보좌관의 후임자로 내정된 볼튼(John Bolton) 전 유엔대사는 미·북 간 합의가 CTBT 가입 후 핵무기와 원심분리기, 미사일 장비 일체를 미국에게 넘겼던 리비아 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Incoming National Security Adviser Bolton: Pakistan Could Be 'Iran on Steroids' (2018 March 23). *Voice of America*. 볼튼의 기용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0) Thomas Wright. (2018, March 9). The Biggest Danger of North Korea Talks. *The Atlantic*.
- 11) Roy, D. (2018, March 9). Trump, too, needs to be a smart cooki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12) Revere, E. (2018, March 9). A US-North Korea summit: what could possibly go wrong? *Brookings Institution*.
- 13) Blader, J. (2018, March 12). 9 things Trump should do before he meets with Kim Jong-un. *Brookings Institution*.
- 14) Hass, R. (2018, March 9). Three things to watch ahead of the summit between Trump and Kim Jong-un. *Brookings Institution*.

- 15) Cronin, P. (2018, March 9). Trump is the peacemaker Korea has always needed. *Foreign Policy*.
- 16) Ibid.
- 17) Hass, R. (2018, March 9). Three things to watch ahead of the summit between Trump and Kim Jong-un. *Brookings Institution*.
- 18) Roy, D. (2018, March 9). Trump, too, needs to be a smart cooki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19) Terry, S. M. (2018, March 9). The first summit between Donald Trump and Kim Jong-un.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20) Hass, R. (2018, March 9). Three things to watch ahead of the summit between Trump and Kim Jong-un. *Brookings Institution*.
- 21) Ibid.
- 22) Roy, D. (2018, March 9). Trump, too, needs to be a smart cooki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23) Hass, R. (2018, March 9). Three things to watch ahead of the summit between Trump and Kim Jong-un. *Brookings Institution*.
- 24) Terry, S. M. (2018, March 9). The first summit between Donald Trump and Kim Jong-un.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25) Sanger, D. (2018, March 9). How would US verify that North Korea is disarming? *New York Times*.
- 26) Cha, V. (2018, March 9). What will Trump give up for peace with North Korea? *New York Times*.
- 27) Terry, S. M. (2018, March 9). The first summit between Donald Trump and Kim Jong-un.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28) Cronin, P. (2018, March 9). Trump is the peacemaker Korea has always needed. *Foreign Policy*.
- 29) 트럼프 행정부 외교 안보 라인에는 한반도 전문가뿐 아니라 아시아 전문가조차 매우 소수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도는 대체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북한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 역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 문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최근호 및 차호 소개

제1710호(3월 12일): 북한의 비핵화 협상전략 전망과 우리의 대응

— 이상민 —

제1711호(3월 19일): 최근 한반도 정세 분석과 관리 방향

— 손효중, 이종구, 전재우 —

제1712호(3월 26일):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시각

— 설인호 —

차호

제1713호(4월 2일): 전투 능력 곡선과 훈련

— 김인국, 최광현 —

저자 소개



설인호

한국국방연구원 정책개발실
ihseol@kida.re.kr

제19차 한·미 국방분석세미나

□ 제19차 한·미 국방분석세미나(DAE) 개요

■ 개최일시: 2018년 5월 8일~11일 (화~금)

■ 개최장소: 한국국방연구원(KIDA)

□ 논문제출 시한: 2018. 4. 13(금). 18:00

■ 제출처: 이윤호 (연락처: 02-961-1879 /
yhlee@kida.re.kr, yhlee@kida.mil)

■ 발표자 확정: 2018. 4. 16(월) : 개별통보

* 채택된 논문은 세미나 각 분과에서 발표하며 소정의 원고료 (발표료)를 지급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국방연구원 홈페이지 (www.kida.re.kr)을 참조하세요.